

# 의료 공공성·시민건강권 확보 기대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3곳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늘행복 아파트 프로젝트' 탄력

광주 광산구에서 민관 협력으로 공공성과 시민 건강권 확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의료 협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광주의료사회협)은 "이달 중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창립총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차례 연기했지만, 곧 일정을 잡아 행사를 치르고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의료 실현'을 구호로 내건 광주

의료사회는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표로 내세웠으며, 조합원의 공동출자로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심 무대는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 의료사업 설립 움직임은 2015년부터 시작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협동해 건강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취지로 당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후 이 추진위원회는 선진지 탐방과 발기인 대회 등을 이어가며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왔다.

광주의료사회는 지난해 광산구와 '늘행복 프로젝트' 주치의 협력기관으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설립의 급물살을 탔다. 민선 7기 광산구는 하남주공 1단지, 우산빛마을채, 산정빛마을채, 3곳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돌봄·일자리·주거·공동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었다.

광산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의 의료·돌봄 분야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지향하는 광주의

료사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의료사회의 노력에 광산구의 정책이 더해지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654명의 각 계각층 인사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창립총회를 거쳐 등록을 마치면 광주에서는 첫 번째, 전국에서는 24번째 의료사회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의료사회는 올해부터 우산동에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개설해 외래·방문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치의 사업을 실시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병행한다. 나아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해 방문·요양 사업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실천단을 운영하고, 건강교실 개최와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 사업도 마련해두고 있다.

광주의료사회가 중장기 계획으로 내놓은 양친 서비스와 마을돌봄사업도 눈길을 끈다.

협동조합에서 주치의의 담당할 임명석 광주의료사회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표는 "한국 의료에서는 어색한 주치의 양친을 실시해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겠다"면서 "특히 마을돌봄사업을 활성화해 어르신들이 병원보다는 정든 마을에서 적절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의료사회의 합류로 광산구의 늘행복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생활건강을 돌볼 '늘행복 마을건강센터'를 하남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에 개소한 광산구는 반전과 부식 수요에 대응해 건강합동조합 출범을 도왔고, 장애인·어르신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린리모델링도 이어오고 있다.

광산구는 프로젝트 핵심인 의료와 돌봄 분야가 광주의료사회와 함께 구체적 모습을 갖춰감에 따라 올해 아파트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는 하남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 내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생활건강을 돌볼 '늘행복 마을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중이다. (광산구 제공)

# 수완에 '별밤 미술관' 열렸다



최근 광산구 풍영정천변길공원에서 열린 별밤 미술관 2호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 풍영정천변길공원에  
 '별밤 미술관 in 수완' 개관  
 한희원 작가 작품 전시

미술관에서 매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첨단 1호관에 이어 이번 미술관 이름은 '별밤 미술관 in 수완'이다.

전시관에서는 개관 기념 초대전으로 한희원 작가의 '봄, 영원한 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비대면 상설 전시관 '별밤 미술관' 2호관을 풍영정천변길공원에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별밤 미술관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시설들이 휴관에 들어감에 따라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지하고, 비대면 전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심 속 찾아가는 미술 전시 구조물이다.

광산구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작품을 즐기며 코로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밤

광산구는 2호관에 이어 운남·신창·선운관도 차례로 개관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별밤 미술관은 밤에 열리는 야간 특화 전시관"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연과 예술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명소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공공데이터 댐' 구축 디지털 뉴딜 선도

광산구,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일괄 처리 자동화

시각화 서비스 제공

자동 연동을 구현해 데이터 수집에서 분석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일 '광산형 행복뉴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광산형 공공데이터 댐' 구축을 마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 한다"고 3일 밝혔다.

광산형 공공데이터 댐 구축은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정제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 완료로 3개월씩 소요되던 데이터 정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고, 구 직원들이 300여종의 데이터를 열람·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광산구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사업'을 연결해 데이터 품질 개선 분야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했다.

광산구는 이번 공공데이터 댐 구축으로 고품질 데이터 활용, 다양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서비스 제공 등 과학행정의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댐 구축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지난해 6월 제정된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정책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문화재 원형보존 나선다

관리체계 구축·역사 자원 발굴  
 124억원 투입해 보수정비

광주시는 "124억원을 투입해 문화재 원형보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1년 문화재 보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유산 활용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문화재 원형보존과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한벽당 일원 등 지정문화재 32개소에 24억원을 들

여 보수정비를 실시한다. 또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 원호사의 보수정비와 중심사 등 전통사찰 6개소의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를 추진한다. 무등산권 내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및 포충사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관리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 211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경미한 훼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수·복구하고,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돌봄사업에 8억원을 투입해 관리한다.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리·복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념물 7호인 포

충사를 선정, 기록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와 함께 생생문화재, 문화재야행, 향교·서원·산사 체험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공사를 올 연말까지 완공하고,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 유서 깊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희경루 중건사업 추진에 70억원을 투입한다.

김영근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2021년 문화재 보존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재 활용사업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

www.yhbeco.co.kr